

한국어 교육은 빠를수록 좋다

이연희 (교감/교무주임)

토요일 한글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친 지 20년이 되어간다. 주로 초급반을 가르쳤는데 책 읽는 발음이 정확하고 말도 제일 잘 듣고 선생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도 대단하다. 또한 어린 학생들의 학습태도는 늘 진지하다. 그래서 책임과 보람을 느끼고 사랑스럽다. 많은 아이들이 토요일은 쉬고 싶어한다. 컴퓨터 게임, 축구, 수영, 태권도등 공부아닌 것들을 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갈등을 하고 한글학교 다니는 것을 늦추거나 포기한다. 한글은 집에서도 충분히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행동으로 옮기기 까지 시간이 흐른다. 어릴 때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만 중학교에 들어가면 아이들은 부모님 말씀에 반기를 들고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러다 보니 한글은 뒷전으로 물러나 버리고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후회하며 부모 원망하는 학생들을 종종 봤다.



언어 개발 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두뇌 부분이 7살에서 11살 사이에 급속도로 발전이 이뤄진 뒤 사춘기에 접어들면 뇌세포 생성이 사실상 중단이 된다고 한다. 이것은 또다른 언어를 배우는데 나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같은 날 미국 땅을 밟은 이민 가정의 형제 중에서 나이 어린 동생이 형이나 누나에 비해 월등히 빠른 속도로 영어 구사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 라 생각한다. 즉 자녀가 초등 학생일 경우 한국어 배우는 것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기라는 것이다. 상당수의 부모들은 일찍부터 자녀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경우 오히려 영어에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겠냐는 우려를 보이지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언어 개발에 도움을 주면 겹치 결코 부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최근 한류 열풍 이라며 한국의 드라마나 대중 음악이 유행이다. 덩달아 우리의 자녀들도 좋아하는 드라마, 대중 가수 이름을 줄줄 외운다. 어떤 학생은 좋아하는 노래 가사를 읽을 수가 없다고 늦게나마 한국학교에 등록을 한다. 이제 한국어를 모르면 곤란한 시대가 되었다. 능숙한 한국어 실력이 미 일류기업체, 공공기관 입사에 주요 선발 기준이 되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능숙'이라 함은 단순히 한국어로 말하고 듣는 것을 넘어 전문적 수준의 한국어 작문 실력까지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제 한국어는 민족 교육 차원을 넘어 한인 2세들의 생존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확실하고 정확한 우리 글과 말을 가르침에 다소 힘들더라도 어린 자녀들에게 전수시키는 일을 우리 모두 게을리 하지 말았으면 한다. ♣